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강화

소비자 만족도 'Up'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초·중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이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제는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육성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 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품질인증 심사 신청을 한 농촌교육농장 85곳을 심사해 최종 7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농촌교육농장은 22일 분청 농업과학도서관(전북 혁신도시 소재)에서 열리는 품질인증농장 수여식(이하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은 지난 9월에 열린 '농촌교육

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농장사례 발표와 전국 농촌교육농장 대표자 간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제1회 한마음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정보는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www.happyfarm.or.kr)과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농촌 활력에 이바지하는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학습의 장이 되도록 품질인증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 혁신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일 제3차 위원회를 열었다.

휴비스, 서울·전주 등에 연탄 총 1만2000장 전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강추위가 찾아오기 전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연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가기 하지만 여전히 연탄이 필요한 곳이 우리 주변에 많다.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도 전국 사업장 소재지 인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일에 힘을 보탤다. 휴비스는 지난 18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주 및 서울 지역에 4천장씩 총 1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여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현충절 전주공공장장을 포함한 50여명의 전주공장 임직원들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전주교동 일대에서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했다.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도 전국 사업장 소재지 인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는 일에 힘을 보탤다.



참여우·나눔축산운동본부 어른들께 점심 대접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권용화)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연말을 맞아 20일 참여우명품과자 도정점 3층 연회장에서 효자도관내 소의계축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로 한우전골을 대접하는 축산물 정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권용화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우전골을 드시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참여우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면서 "전라북도 한우광역브랜드인 '참여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축협 및 축산 단체 임직원인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가품질경영대회 산통부 장관상 수상

전은 유정연 고객지원부 대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오리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품질우수 개인부문에서 고객지원부 유정연 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제조와 서비스, 공공, 교육 분야 등에서 품질혁신활동으로 탁월



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근로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행사로,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은유정연 대리는 서비스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KS서비스

인증획득 기여 △JB카드 전문 콜센터 구축 △콜센터 카드발급 프로세스 개선 △JB 통합콜센터 재구축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내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계획 심의·의결

전주상의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의

전북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0일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정영삼 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양성모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공동훈련센터 및 전북지역 인력양성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을 운영할 전북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지난 10월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분야별 전문가 5명의 심사위원의 서면 및 현장 심사 결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캠티중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가 선정됐다. 선정된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전북지역 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NCS 기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 기계, 전기전자, 화학, 경영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설될 예정이며 빅데이터 시각화 과정, 드론 항공 촬영 실무 과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적용 과정, 화확물질 취급 법규 파악하기 등 총 71개 과정에 2,016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 맞춤형 훈련을 원하는 사업주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의뢰해 수시수요조사를 통해 훈련센터와 연계한 수시 훈련과정 개설로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우리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직무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으로 인력난 해소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공동 마케팅 협력 '맞손'

이스타항공, 홈플러스와 협약 오늘 첫 공동 프로모션 오픈 예정

이스타항공이 20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10층 경영회의실에서 홈플러스와 공동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사 마케팅을 총괄하는 홈플러스 장중호 전무와 이스타항공 이수지 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마케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량 증대와 신규 회원 가입 유치를 목표로 유통과 항공을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홈플러스와의 협약 체결을 기념해 오는 21일 기념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여행의 대중화로 항공권도 마트에서 쇼핑하듯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상품이 되어 유통사와의 협업이 기대된다"며, "공동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캠페인, PB상품 개발 등 양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어촌임대주택 외부전문가 품질점검 실시

전개공, 진안·무주 등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건설중인 농어촌임대주택 2개 현장(총 180세대, 진안 100세대·무주 8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은 원광대학교 소광호 교수 등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분야 총4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대분양에 앞서 세대 및 공용부위 마감 시공 상태 등을 점검했다.

공동주택 마감단계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및 하자예방 대책 등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분야별 의견을 개진하고, 농어촌임대주택 현장에 적용·개선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지적사항은 현장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및 심각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별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현장관계자에 부실벌점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전북개발공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건설중인 농어촌임대주택 2개 현장(총 180세대, 진안 100세대·무주 8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해 건설현장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윤리, 전북개발공사에서 2017년도부터 구성·운영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품질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반기별 1회 품질점검을 통해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에 일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사회 봉사·나눔경영 실천

경진원, 송천1동에서 '사랑의 김장봉사' 활동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속가능한 나눔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활동을 위해 20일 송천1동에서 '사랑의 김장봉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김장봉사'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는 2018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2년째를 맞이하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세대, 식사준비가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주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활동이다.

이번 김장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김장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더 봉사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송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교회, 송천1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사랑의 교회 여신도봉사단과 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밑반찬을 만들고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송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경순 위원장은 "김장 김치가 어려운 세



대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활동을 통해 경진원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 도 감사관실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0일 전북도 감사관실과 간담회를 갖고, 전전건설협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건설공사 계약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전

북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적정공사비 확보와 원·하도급자간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도내 발주기관의 신규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윤상 기자